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속기록
「생명을, 묻다」

◉ 일 시 : 2018. 7. 9. (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후 원 : 환경일보, 애니멀피플(한겨레)

◉ 제 작 : 속기법인 대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회 순

1. 개회식 **1**

-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2. 발제 **13**

- 발제 Ⅰ 살처분 현실로 본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학장)
- 발제 Ⅱ 3년 후, 환경 문제로 본 살처분
  - 문선희 (사진작가)
- 발제 Ⅲ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
  -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 발제 Ⅳ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안
  - 함태성 (강원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지정토론 **43**

- 토론 Ⅰ 가축 전염병에 의한 가축 살처분 무엇이 문제인가
  - 박종무 (평화와 생명동물병원 원장)
- 토론 Ⅱ 가축매몰 및 매몰지 관리의 문제점
  - 권순원 (경기도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 토론 Ⅲ 가축 살처분의 원인 상황과 발생 상황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4.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7**

5. 총평 및 폐회 **74**

[개회 : 14시 01분]

1. 개회식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의 함보현 변호사입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세미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표창원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그리고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공천, 사단법인 선, 화우공익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국민의례 】

바로!

시간관계상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전에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해서 많이 계실 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패널 분들은 앞으로 나오

셔서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 기념 촬영 】

본격적인 세미나 순서에 앞서서 간략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 말씀과 함께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는 오늘 발제자로 참여하신 문선희 작가님이 찍으신 살처분 매몰지 사진을 바탕으로 교육방송에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경과보고와 함께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동영상 시청 】

본 행사는 대규모 가축 살처분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준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환경, 살처분과 사후 관리, 매몰지 안정화 대책, 법제도 문제점 등에 대해서 수차례 내부 강연을 거쳤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를 종합하고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개선책과 관련한 지혜를 모아보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과 동물 가치, 환경 문제, 경제, 법제도라는 4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각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지정토론자까지 포함하여 학자, 작가,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패널을 모셨습니다. 가축 살처분 문제에 대하여 공익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의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축 살처분과 관련한 법제도 전반을 점검한 뒤 연내에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끝나면 인사말로 들어가겠습니다.

【 동영상 종료 】

그러면 이제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국회의원들과 발제 대표자들의 인사말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의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저는 국회의 동물복지국회의원포럼 공동대표도 함께 맡고 있는데, 앞에 자료 화면을 보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더 많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권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국회에 입성하셔서 하반기에 저희들과 함께 그 문제에 더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해 주셔서 송갑석 의원님께도 기대가 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시민단체와 포럼,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께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AI, 구제역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전면화 되고 나서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항상 사후 대책에만 골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후 대책의 방식이 저렇게 살처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2차, 3차의 피해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 년 동안 목격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이제 동물을 살처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토양이 오염되고, 또 그 살처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도 지금 큰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후 대책으로는 구

제역, AI를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모든 원인은 결국은 공장식 축사에 있지 않은가. 이 공장식 축사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되고, 저도 올해 동물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동물들을 저렇게 좁은 케이지 안에서 가둬 키우고, 거기에 엄청난 항생제를 투입하고, 또 그런 불안전한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좀 더 근본적인 해법,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어떤 해답을 실천하기 위한 결단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동물기본법도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국회의원 김현권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국회에 와 있고 제 아내가 의성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루는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말은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달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키우는 소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마리가 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핵 진단을 받으면 이 소는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몰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일관 사육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오로지 생산하고 출하만 하는데 도대체 결핵이 들어왔을까 싶어서 도저히 역학적인 관계가 해석이 안 돼서 재검을 요청을 했어요. “이상하다. 도저히 이상하니까 납득이 안 간다. 재검을 해 달라.”라고 했더니 재검을 하고 나서 “결핵이라고 진단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진단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분리를 해서 두 마리를 따로 특별 관리를 하면서 한두 달 지나니까 다시 검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서 다시 재검을 한 결과 “결핵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만약에 그게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매몰 처분을 해야 됐더라면 저나 제 아내나 굉장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가축을 매몰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경제적인 가치, 환경적인 2차 피해가 뒤따르지만 그 자체 생명을 매몰한다는 반인간적, 그로 인한 인간성 파괴가 굉장히 그 자체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매몰 처분에 들어갔다 나온 공무원들, 그리고 일용직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한 번 매몰 처분을 들어갔다 나오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 트라우마, 그 기억들을 그냥 아마 평생 가지고 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살처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직시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살처분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방역의 수단으로서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역만 제대로 되면 살처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질병의 발생 빈도만 줄일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함과 동시에 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끝부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방역정책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역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어나가면서 방역의 경험을 내부적으로 전혀 축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고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이번에 정부 바뀌고 처음으로 방역정책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16년, 17년도에는 그때 AI가 터졌을 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3,400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죠. 그렇지만 이 정부 바뀌고 나서 그것을 거의 두수로는 20분의 1 이하 정도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어떻게 제대로 방역을 해서 살처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시급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방역에 대한 체계와...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방역정책국이 하나가 만들어졌지만 덴마크는 아예 식품수의검역청이라고 있죠. 아예 농업청, 수산청과 버금가는 식품검역청이 있어요. 방역하고 검역을 다루는 청이 있죠. 그래서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농가와 경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복지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또 이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측면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꼭 살처분을 해야 되는가, 매몰 처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유럽은 보면 매몰 처분이 아니라 지금 방식도 소각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종합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국회의원 표창원**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우선 늘 생명 존중과 또 동물권 보호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김현권 의원님, 송갑석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前 강금실 장관님, 우희종 교수님, 기타 발제, 토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생명 존중이라는 이 말씀과 가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다른 현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해왔던 지난 수십 년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아울러 우리가 겪었던 인류 사회의 비극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가 600만 명의 사람들을 단지 그들이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또 유대인이라는 이유, 혹은 사회주의자나 성적소수자라는 이유 등만으로 집단 수용하고 학살했던 전력, 일제가 자행했던 학살,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졌던 다양한 형태의 학살과 인명 경시적인 그런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지 대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 찾아낸다면, 명분만 찾아낸다면 같은 동족인 인간, 같은 민족, 같은 이웃에게조차도 쉽게 학살과 살상의 총, 칼을 휘두르는 우리들. 동물은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현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추가 감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 필요한 조치임은 모두 부인하지 않겠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너무나 많은 3,000만 두수 이상의 살처분을 해야 했는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살처분 이외의 다른,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생명 존중의 정신에 최대한 입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최대한 입법적 노력을 할 테고요. 오늘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그리고 이후로 연구도 지속되고, 사회 각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 국회의원 송갑석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저는 지난달 13일 날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제 방을 찾아가는데 아직도 버벅대고 2층 식당을 찾아다니기가 힘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 국회가 개원되지 않아서, 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신분은 갖고 있으되,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세미나가 제가 한 국회의원으로서 첫 일인 것 같습니다. 첫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오늘 발제자로 나서신 사진작가 문선희 씨하고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인연 정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먼저 봤었던 문선희 씨의 개인전 『묻다』 그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 또 그 작품의 첫 전시회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봐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기꺼이 오늘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는 보셨지만 실제로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을 실물로 볼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사진에 보여지는 그것을 뭔가 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진은 굉장히 색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진은 또 좀 황량한 사진도 있죠. 그렇지만 그 사진 속에 동물의 사체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저한테 대단한 어떤 상징이고,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보면서 2011년도 통계가 소, 돼지 좀 큰 동물들 이게 354만 마리나 묻혔다. 그다음에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이 2011년도에만 700만 마리가 묻혔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뉴스에도 살처분의 현장들이 방영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보인 반응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린 것 외에 다른 반응은 없었는데, 구체적인 이 수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손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산채로 묻힌 동물들과 자신의 감정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반응일 건데, 저는 총체적으로 그런 거였습니다. '도대체 몇 백만 마리의 동물을 그냥 멀쩡히 죽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암묵적으로 계속 역사는 발전되어 오고 있고, 인간의 문명은 발전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울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문선희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저 작가는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라고 해서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것이 돈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 늘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작업의 처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문선희 작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선희 작가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우리 강금실 前 장관님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일을 끌고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금실 前 장관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달이 채 안 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정미 의원님을 포함해서 선배 의원님들이 이끄시는 대로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다음은 여러 준비단체 중 하나인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박영립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 앞에 주최를 쭉 보시면 의원실이 네 분, 그리고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개혁입법연대를 보는 듯합니다. 의원실이 이렇

게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화우공익재단이나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은 로펌 공익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로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인들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의원들과 로펌 공익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그런 자리는 드문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 주신 이정미 의원님, 그리고 김현권 의원님, 표창원, 송갑석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제가 몸담고 있는 화우공익재단,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축 살처분의 문제를 생명, 윤리, 환경, 그리고 경제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가축 살처분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그리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발생하는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축의 생명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감염 발생 지역과 일정한 거리 내에 가축을 예방적으로 대거 살처분 할 경우에 경제적 비용, 그리고 환경오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자료 영상에서 보았듯이 3,600만 마리가 넘는 가축 수, 그리고 2조 원을 훨씬 넘는 보상금, 4,890여 곳의 매몰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치 외에도, 그리고 풀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 하는 매몰지. 오랜 시간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가축 살처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론화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온전한 행복한 건강한 환경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다른 생명을 포함한 자연을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폐기하는 시대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

한 독재의 결과가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우타라칸트주 고등법원에서 모든 동물은 살아 있는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가진 법적 독립체라고 선언한 그 판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가축 살처분의 실태와 쟁점을 진단하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공존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말과 축사는 사전 행사라기보다는 토론과 의견 개진을 깊이 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2. 발제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이제 발제와 지정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는데요. 마이크를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님,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강금실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포럼 지구와사람 대표를 맡고 있는 강금실입니다.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현권, 표창원, 송갑선 의원님, 화우 박영립 이사장님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취지를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은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공인법인들의 정서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이제는 진정한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법 제도가 바뀔 수 있는 실천의 첫걸음으로써 이 세미나에 의미를 두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모두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맡았는데요. 발제 맡으신 분들 15분간 발표... 너무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시간 잘 엄수해 주시고요. 원래 진행자는 시간 체크하는 것만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한 5분 전쯤에 시간 알려드리는 포스트잇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부와 2부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간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2시 25분 시작인데, 10분 정도 늦었으니까 네 분의 발제를 1시간 동안 15분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희종 교수님, 문선희 작가님,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회장님,

함태성 교수님 듣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토론 세 분이 박종무 수의사님, 권순원 이천시 환경보호과장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세 분 토론 듣고, 그 후에 상호토론과 자유토론을 듣고 5시 반 안에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종 교수님,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에 관해서 15분 동안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 받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는 우희종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묻다' 사실 묻다는 이중적 의미이겠죠. 살처분처럼 땅에 묻는 것과 더불어서 과연 그런 맥락에서 생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적인 살처분 현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오늘 발제를 주로 생명 존중, 다시 말해서 생명을 묻는 구체적인 참사들이 벌어지는 우리나라에서의 생명의 의미, 생명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데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되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아마 제 발제 이후에 구체적인 발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쪽에 있는 것처럼 국내 방역 살처분 현황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 않죠.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가장 최선 방식이 살처분으로 어쨌든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처분 과정도 국제적인 기준에 보면 참 많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또 아까 첫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살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 손해, 그

리고 그건 비용이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또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환경의 문제라고 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앞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환경과 비용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인간 위주의 관점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좀 너무 나쁘다라는. 물론 그것은 당연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인간 중심의 비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살처분으로 상징되는 농장동물의 복지라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동물과 낱낱개의 생명체로서의 동물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인가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 또한 생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과 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법안이라든지 정치적인 측면, 그 중간 어디선가는 선을 그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생명 존중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뭐냐는 질문은 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쪽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과학 문명의 지금 근대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정의는 과학적인 정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바이러스나 프리온(Prion)이라고 하는 광우병 원인 물질처럼 생물과 미생물의 경계에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형태가 있어야 되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 작용을 하고, 또 자기 복제, 생식 활동을 하면서 진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잘 들여다보면 생명체를 굉장히 유물적이고 기계론적으로 보는 근대의 전형적인 환원주의적인 관점이죠. 더욱이 이것은 생명을 커다란 보편적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게 한 개체 하나하나가 느끼는 고통의 문제라든지 생명의 특징인 개체고유성,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는 자기만의 탄생과 자신만의 삶을 살다가 자기만의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라는 특성이 철저하게 무시된 관점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16쪽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이 뭘까 생각해보도록 하죠.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또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소나 돼지나 또는 닭, 혹은 꽃 한 송이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한국이 지구상에 있고, 지구가 우주에 있다면, 우주의 시원에서부터 쭉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구가 나오고, 한 민족이 등장하고, 또 21세기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이 계시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든 최소한 우주가 만들어지는 시작점부터 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왔고, 그런 우주의 역사 및 생명의 역사의 그 시간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꽃 한 송이, 동물 한 마리라고 말하는 그 개체는 나와 동 시대에 있기 위해서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된 이래 138억년의 긴 시간을 담고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런 긴 시간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족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끝없는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철저한 순환 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처분이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순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생명체를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개체로 바라보는 데 우리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명 존중이 정말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살려두고, 혹은 사람들도 오래 사는 게 생명 존중일까? 저는 이 지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100년 후면 다 저 세상 쪽에 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태어나서 죽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

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생명 존중일까? 저는 그 지점이 우리가 늘 구분해 봐야 되는 생명 집착과 생명 존중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생명 집착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일지 모릅니다만, 진정한 생명 존중은 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자신만의 삶을 구성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 생명체가 생명체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체가 얼마만큼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문화가 과연 그런 점에서 생명 존중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이 생명을 묻다'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생명체가 최소한 무기물과 다른 것은 고통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느끼는 존재; 아마 그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이지만 미생물도 그렇고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있는 것이고, 최소한 생명체를 그러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강압적으로 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 존중, 생명 윤리는 생명에 있어서 불필요한 고통, 특히 농장 동물에 있어서 최소한 농장동물로서 살아가고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부여하는 일은, 그것이 인간의 관점, 경제적 이유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건; 재고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제가 17쪽 밑에 썼습니다만, 광의의 고통으로서 최소한 생명체로서 누려할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이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그런 측면에서 동물이 사람과 대등한 하나의 생명체의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동물을 대등한 권리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 역시 우리들의 관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내에 지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러한 감정과 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지만 최소한 그 고통을 느끼는 주체로서의 존중되는 지점과 그러한 주체로서 생태계 내에 가장 적절한 위상 사이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관념적으로 동물 복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산업동물에 똑같이 적용하라.'라고 주장합니다. 그 마음이나 감정에는 공감하지만 한편 우리가 식물만 생각해도 어떤 식물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관상용으로 보기도 하고 나무의 건축 재료로도 사용하고 있듯이, 동물에서도 생태계 내의 지위에 가장 적합한 그런 동물권, 즉 각각의 생태계 내 지위에 적합한 수준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광의의 지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18쪽에 보면 최소한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동물 복지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의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 구조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접목될 때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현재 시도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동물의 질병에 대한 발생과 방역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연계 내에서 질병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발생을 없애려고 그렇게 막대한 살처분이 과연 타당한가? 어떻게 보면 자연계 내에 모든 생명체, 미생물을 포함해서 우리는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자체를 막으려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저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발생이 이렇게 유행돼서 방역이 필요한, 유행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행의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농장동물에서는 역시 공장식 축산이죠. 그리고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동물 복지와 연계돼서 이뤄지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살처분이 발생을 막기 위한 관점으로 많이 치우쳐져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

다. 국제적으로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죽여 버리자는 이런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따로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발생과 유행을 구분했을 때 우리는 살처분의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사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살처분의 문제, 또 방역 관점에서는 유통, 그리고 동물 복지의 측면에서는 도축의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육의 문제에 많은 비중이 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EU 수준의 동물 복지적 도축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축 과정이야말로 동물이 죽음을 앞두고 겪게 되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인데, 우리는 그 지점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용 도축이라는 부분도 반드시 현장 문제에서는 고려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보다 살아 있을 때,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동물복지 개선을 생산자에게 요구하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고, 소비자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물 복지 생산이나 도축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생산자는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더욱이 동물복지용 동물 사육이나 도축이라는 부분은 생산성만을 고려한 체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런 면에서 그런 차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만, 동시에 오히려 정부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살처분으로 상징되는 농장동물에 대한 삶의 질의 개선 이 지점은 소비자가 전적으로 떠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부분을 생산자에게 떠맡길 수가 없습니다. 생산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유럽처럼 그 부분을 꼭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괜찮은데,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되시면 퇴장하시거나...

문선희 작가님, 3시 5분까지 발표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선희 (사진작가)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문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일동 박수 】

시간을 3시 5분까지 맞춰야 하니까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사진작가니까 현장을 다녀 본 제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0년 겨울에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있었습니다. 매일 산 채로 파묻히는 동물들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처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살처분이라는 게 저런 거라는 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살아 있는 생명을 저렇게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사진입니다. 그 해에만 전국에 4,792곳의 매몰지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파묻었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경기도 파주에서 지하수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는 보도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경기도 여주에서 사체가 썩으면 발생한 가스 때문에 썩다 만 사체들이 튕겨져서 나왔다는 엽기적인 뉴스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그때 조성된 매몰지가 사용 가능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그렇게 비좁은 땅에 파묻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도를 따라가 보니까 비닐하우스 두 동이 나왔는데요. 저는 잘못 찾아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차에서 내렸는데 오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오리는 한 마리도 없고 오리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리를 키웠나보구나.' 짐작했어요.

비닐하우스 한 동에서는 채소를 키우고 있었고, 다른 한 동은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몇 달 후에 찍은 겁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아는데, 시골 분들은 절대로 땅을 놀리지 않으시거든요. 뭔가를 항상 키우시는데, 그냥 밭도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놀고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뭐, 놀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놀고 있는 땅에서 풀도 안 자랐지?' 이상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발을 내딛은 땅이 물컹 하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는데, 땅이 죄다 물컹물컹 한 거예요. 눈이나 진흙을 밟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 나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 그대로 도망치듯 나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물컹한 땅은 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다시 가서 확

인해 보자니 겁은 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매몰지들을 찾아가 봤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비닐로 덮여 있고, 근처에 경고표지판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몇 마리를 파묻었다. 3년 후 그날까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는 내용이 적힌.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로 갔던 그 비닐하우스에는 비닐도 없었고 경고표지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착각했나? 오리 냄새 때문에 너무 겁먹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싶어 그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본 장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굵은 모래를 잔뜩 뿌려놓으셨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황토도 아니고 모래를 뿌리다니. 그러고 보니 모래 밑에 무슨 밀가루 같은 게 막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고 고운 건 또 뭐지?'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살펴봤는데, 뒤로 나자빠질 뻔 했습니다. 곰팡이였어요. 하얀 곰팡이. 그 곰팡이 위에 모래를 뿌리신 거였어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계속 이곳을 찾아갔어요. 몰래 지켜본 거죠. 곰팡이는 갈수록 기승을 부렸어요. 마른 땅 틈사이로 계속 해서 곰팡이가 뿜어져 나오면 농장 주인은 다시 모래를 뿌리고, 그러면 그 위로 곰팡이가 또 올라오고 그럼 다시 모래를 뿌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곳들은 어떤지 확인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전국에 있는 10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다녀봤습니다.

매몰지를 찾아다니기 전에 매몰지 선정 기준을 한번 찾아봤는데, '집단가옥, 수원지, 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마을 어귀, 도로면에도 흔히 있었습니다. 큰물이 흐르는 하천변에도 있었고요. 작은 도랑에도 있었고, 물을 써야 되는 논 구석은 물론이고, 어떤 데는 논 한가운데도 매몰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나주인데요. 분명 매몰지인데, 매몰지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매몰지 표지만 대신 엉뚱하게도 구석기 유적지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공유지에 파묻는다는 게 너무 다급하게 파묻은 나머지 구석기 유적지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구석기 유적지이자 매몰지가 된 곳입니다. 당시 지자체가 얼마나 다급하게 매몰지를 조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물들을 파묻는 방식을 '구덩이 매몰 방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땅을 파고 비닐을 이중으로 깔아요. 동물들을 넣고, 비닐을 닫고, 석회나 흙으로 이것을 덮어서 밀봉합니다. 사체가 썩을 때 나오는 가스나 침출수는 관을 몇 개 꽂아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 관들이 유일하게 어떤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이 관도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설치된 관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힌 건지 터진 건지. 어쨌든 이런 기이한 모습으로 엄청난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괴산인데요. 여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 비닐이 어제 바꾼 것처럼 새 거더라고요. 이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직도 관리가 되고 있구나. 그건 다른 곳도 아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구나.' 하는.

대부분의 매몰지들은 이렇게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풀들은 흙 한줌만 있어도 잘 자납니다. 그러니까 매몰지를 덮은 얇은 흙에서도 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3년 전에 제가 이곳에 갔을 때 저는 이 땅을 파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하수를 뽑아서 검사를 해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저 풀들이 잘 자라는지만 봤어요. 풀이 이렇게 잘 자라기만 했어도 제가 좀 안심을 했을 텐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시각적으로만 보면 이 풀들은 타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닐은 멀쩡했어요.

여긴 다른 곳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풀들을.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SF영화가 생각났어요. 외계인이 나올 때면 끈적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이게 풀이야? 벌레야? 이게 뭐지?' 너무 소름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매몰지는 문제가 좀 심각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갔던 곳인데요. 비닐 아래도 똑같이 이 풀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비닐 위에 있는 풀들만 색깔이 그대로 있고, 비닐 아래서 자란 풀들은 이렇게 새하얗게 바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진 밑쪽에 보시면 풀이 약간 초록색인 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저렇게 초록색 풀이었고, 사랑스러운 노란 꽃망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죽어 있는 겁니다.

한쪽은 하얗게 바랬고, 한쪽은 기이하게 액체를 토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땅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유독가스라도 나오고 있는 건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음지에 있는 매몰지인데요. 너무 습하다 보니까 비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의 상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땅은 물컹물컹했고요. 또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다녀본 매몰지 중에는 봉분처럼 부풀어 있는 곳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무거운 돌들을 올려놓기도 하셨더라고요. 악취가 심하고, 풀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땅은 물컹거리는 것을 보고 생각했어요. 매몰지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과학자가 아니어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오감으로 체험한 거니까.

그런데 제 걱정과는 상관없이 제가 다녀본 곳 100곳 중에 20곳에서는 이미 농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워낙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사용이 가능해진 매몰지의 절반 이상이 이미 경작

등으로 사용이 됐다고요. 제가 가 본 퍼센트 보다 훨씬 높은 거죠.

옥수수 밭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고 그냥 찍었는데, 좌우에 보시면 다른 밭들은 옥수수들이 엄청 무성하게 키 크게 자라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매몰지였던 이 밭의 옥수수들은 완전히 짓눌려서 쓰러져 있었고, 앞에 패대기쳐 있는 게 앞에 경고표지판입니다.

여기는 깨밭인데요. 깨들이 다 쓰러져 있고, 깨밭 한 가운데만 길이 난 것처럼 깨가 하나도 못 자라고 풀들만 무성했어요. 이 깨밭은 매몰지가 아니었습니다. 매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깨밭이었죠.

지하수 문제. "침출수가 오염돼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 지하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알겠더라고요.

지하수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 강화군에서 침출수 때문에 지하 17m 깊이의 지하수가 쓰레기 매립장 수준으로 오염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의 보고서들도 찾아봤는데, 3년까지가 침출수가 제일 심한 게 아니라 3년 이후부터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2010년 5월 이전에 매몰지에서 얼마나 침출수가 나왔나를 보니까 35%였는데요. 2011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23%입니다. 시간 지나면 점점 더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0년 당시에 매몰지가 4,799곳이 생겼는데, 그때 제일 문제가 심했던 곳이 구제역이 막 발생했던 안동이에요. 안동의 일죽면은 그때 매몰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 미공급세대가 1,808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갑자기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하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지하수를 먹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하수 오염 문제도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논인데, 논 한가운데 파묻었고, 문제가 발생을 해서 꺼내 갔다는데도, 이렇게 보통의 논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논인데, 이분은 꼭 논농사를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한번 시도해 보신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될까?' 하고. 벼 반, 풀 반으로 자라고 있었는데 벼가 다른 논에 비해서 확연히 작았고, 점, 점, 점, 점,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고 이상한 날벌레가 소름끼칠 정도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비닐에다 동물들을 넣고 밀봉하는. '이런 엽기적인 짓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상에 없던 돌연변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콩밭인데요. 매몰지를 찾다가 발을 딱 내딛었는데, 이걸 밟을 뻔 했어요. 돼지의 얼굴뼈입니다. 콩밭인데 콩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게 보이시죠? 흙에 이렇게 하얗게 점, 점, 점 있는 게 전부다 돼지 뼈예요. 밭을 일구시면서 큰 뼈들은 다 밖으로 던지시고 콩을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콩이 못 자랐죠. 물어보니까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고, 장비도 인력도 너무 모자라서 원래 3m를 파서 묻어야 되는데 땅을 팔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대충 파묻고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완전히 썩은 겁니다. 어쨌든 썩었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콩을 심었는데 콩이 못 자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제가 전문가 분께 여쭤봤더니 콩은 원래 질소 비료를 안 한대요. 콩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농작물이래요. 그런데 돼지가 썩으면 질소 함량이 많아진대요. 질소 과잉인 땅인 거죠. 그래서 콩이 자라지 못한 거래요. 이 땅이 품은 문제가 질소 과잉 하나일까요?

다시 첫 번째 매몰지입니다. 제가 이 매몰지를 1년 후에 다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추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부추는 다른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부추보다 작았어요. 비닐하우스 입구에는 부추를 판매하는 상자가 쌓여 있었고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1년 전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때 아주 드문드문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 그 풀이 부추였어요. 너무 작고 가늘어서 제가 부추라는 걸 미처 눈치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인 분은 1년 전에도 부추를 심으셨던 거고, 1년 후였던 당시도 부추를 심으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추는 데쳐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지만 그냥 생으로 무쳐서도 먹거든요. 곰팡이가 핀 땅에서 자란 부추는 누구의 식탁 위에 오르게 될까요?

제가 매몰지를 찾아다니는 내내 저를 엄청나게 괴롭힌 풀입니다. 가시가 달려 있는 식물이어서 옷에도 엉겨 붙고 살갗에도 엉겨 붙어서 자꾸 상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름이라도 알고 당해야겠다.'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환삼덩굴'이더라고요. 훼손된 들에서 흔히 자라는 덩굴식물, 다른 식물들을 휘감아서 말라 죽게 해서 서식지를 넓혀간다. 잎이 사람의 손바닥 모양이다. 치부라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환삼덩굴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 방향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예. 우희종 교수님께서 살처분 문제를 비롯한 우리 자신의 접근 방법과 가치에서 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 시각 전환의 필요성을 짚어주셨고, 문선희 작가님께서는 그냥 생매장을 했는데, 그 상황이 살처분의 문제를 넘어서 땅과 다른 식물, 동물, 생명 시스템 전체, 우 교수님이 지적한 순환의 법칙을 파괴하고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 하는 어떤 부정적인 작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치, 효용, 경제적 가치인데 과연 그런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훼손 문

제, 훼손된 경제가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라는 부분입니다. 경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가축 살처분이 무엇을 훼손했는가? 생명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부터 잠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이 뭔가? 어떤 가치 부분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치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치가 얼마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갑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갑이 자기에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줄 돈 이런 걸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마음이 상했으니까 위자료 이런 것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 갑이 갖는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 입장에서 갑은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가 없죠? 그죠? 갑은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치가 전개되는 어떤 지평, 가치를 보는 눈 그 자체는 가치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치에 대한 논의가 있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바로 해석하기 위한 지평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치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가치가 매우 높다, 내가 나에게 매우 가치가 높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가치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많은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늘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것을 경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늘 묻는 거거든요. 늘 우리는 그것에 잘 못 벗어나요. 소위 근대인들은 잘 못 벗어나요. 늘 경제적 가치를 자꾸 소환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지평, 혹은 우희종 교수님께서는 생명을 고통과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대사를 통해서 자기를 재생산해내는 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 향유자입니다. 생명만이 가치 향유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을 가치 향유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가치향유자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얼마만큼 훼손됐느냐 이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 가치를 보는 지평의 소멸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가치 향유자'라고 해서 제가 '정체성, 생명'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생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른 것과 구분되는 개별성을 갖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특한 내용을 갖추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갖는 트라우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그런 거겠죠. 내가 수의사인데, 내가 공무원인데, 혹은 내가 그냥 일용직이긴 하지만 사람인데, 살아 있는 걸 땅에 파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엽기적인 현상이잖아요. 잔혹극이지요.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안 맞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는 겁니다. 반생명적인 거죠.

그런데 정체성 훼손보다 더 심한 것은, 아예 개별성 그 자체, 존재성 그 자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동물 그 자체, 동물도 살며 사랑하며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희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살아가고 죽는 일련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이라는 건 그에 어울리는 죽음의 형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매우 이렇게 비정상적 형태로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가치 향유자가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제적 가치 이전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주체 자체의 소멸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경제 가치를 논의할 때도 이 주제를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교환 가치, 소비자 잉여 이렇게 나눠지고, 경제학 조금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교환 가치는 말 그대로 물건 값 같은 거고요. 소비자 잉여는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쪽이 더 행복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값보다 더 기분 좋은 정도를 돈으로 환산한 게 소비자 잉여라는 것인데,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고 이런 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교환 가치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요.

교환 가치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살처분 된 가축의 교환 가치, 두 번째로는 입식 제한에 의한 생산 감소, 그 다음에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서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 가치 하락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방역 및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네 번째로 다른 산업,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써베이(survey)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어서 기존에 부분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 전체를 한번 묶어서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살처분 된 가축의 교환 가치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두 번째 칸 아래 보면 800, 그러니까 평균해서 10년 동안에 매년 800만 마리, 제가 지금 평균으로 집어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10년만 놓고 봤을 때 8,000만 마리가 넘게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살처분을 당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나간 보상금 자체가... 제가 닭, 오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닭, 오리 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죽은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나간 게 2017년만 1,600억 정도가 나간 거고요. 그

런데 살처분 된 가축의 교환 가치는 보상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시가로 계산이 됩니다.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냐 그것을 보면 살처분 된 가축의 가치가 얼마냐는 계산은 비교적 단순하게 나옵니다.

다만, 중간에 보상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1년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80% 정도 보상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방역관리에 책임을 져라 이런 의미로. 그전까지는 100% 해 주었는데요. 사실 좀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 저게 자기 책임이 아닌 거, 그러니까 3㎞ 이내라고 살처분 당했거나 혹은 관리상의 소홀 때문에 징벌적으로 한 경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는 보상을 100% 해 주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80% 정도 해 줬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당히 환산을 해서 그다음에 불변가격으로 계산을 쭉 해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63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평균해서 636억, 10년을 그러니까 평균을 해버린 겁니다. 매년 평균 636억 정도의 가축 살처분의 가격이 매겨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살처분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새로 가축을 입식해서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잦아들 때까지 생산하지 못 하게 되면 입식 제한을 겪게 되는데, 입식 제한하면 생산 감소가 있게 됩니다. 생산 감소가 있게 되면 사육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익에 대한 손실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은 부가가치로 따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예컨대 해고를 한다고 하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어는 정도까지는 좀 회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렸다고 해도 어디 갈 데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다른 연구들 보면 '영업이익감소분, 매출총이익 감소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정

도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의 개념이 가장 적합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얼마큼 손실되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 제한이 되었을 때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제도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저것도 가축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6개월치 표준농가 가계비 이런 게 상한선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소득안정자금을 표준농가 가계비로 나누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얼마만큼 입식이 못 되느냐를 나타내는 기간의 개념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구당 연당 농업 부가가치를 곱해 버리게 되면 결국 그게 부가가치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변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1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매년 평균 19억 정도의 부가가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방역비용. 살처분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소독약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소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들어가는 방역비용들. 사실 저속에는 매몰 관련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출이 못 됐겠죠. 그러니까 살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위 관리하기 위해서 상당 정도의 환경적인 비용들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 가치 부분들이 많이 누락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비용 외에 있는 저 부분들은 응당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빠져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방역비용으로 매년 평균 115억 정도가 과거 10년 동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료산업이 타격을 받겠죠. 농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사료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고, 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외식업체입니다. 타격을 계산을 해보면 매우 큰 비중이 외식업체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사료업체, 외식업체들이 생산 혹은 매출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손실로서 반영

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빨리빨리 안 팔리기 때문에. 그전에 냉장육으로 팔면 얼마 받아야 될 게 냉동육으로 팔면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자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쭉 다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좀 큰 금액이 나오죠. 연 평균 해서 1,572억 정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구제역까지는 제가 다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 합쳐보면 살처분 된 가축 금액, 가금업에서의 부가가치 손실, 그다음에 방역비용 등, 그다음에 타 산업 손실 다 계산해보면 2,342억,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10년 동안에 매년 평균 2,3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합쳐봤거든요. 닭고기 생산액, 오리고기 생산액, 계란 판매액, 그다음에 오리알 판매액 그 네 가지의 생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저 숫자가 그거의 4.4%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생산액 대비 4.4%니까 그 4개의 업종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대비로는 10%가 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매년 저 산업의 10% 정도는 매년 우리가 피해나갈 수 있는, 피해야 될 그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한 거죠. 발병과 유행을 우 교수님께서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행이라는 측면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이 어떻고 정체성이 어떻고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 다 빼고 그냥 근대인처럼 그냥 경제적 가치 딱 그것만 놓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2,000억 이상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상

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피할 수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비용을 지출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식품화한 가축의 산업적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처분을 하는데, 사실은 살처분 그 자체가 해마다 평균 2,000억 이상의 비용을 내고 있고, 차라리 그 2,000억을 다른 데로 쓴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막고 있지 못 한 게 아닌가. 그것을 우리 경제적 훼손 가치에서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대 함태성 교수님께서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법전원의 함태성 교수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주최 측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늘 TV에서만 봤던 의원님들을 실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느낌이 지금 여기가 국회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입법부라고 하는 곳인데, 의원님들을 보면서 '입법? 입법이란 무엇일까? 입법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법이라 그러면 사회구성원들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세계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입법의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떤 가치의 세계를 반영하는 과정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가 또 난민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개인적으로는 이게 쉽게 호응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물도 우리가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어떠한 범위에 넣어서, 또는 사회적 약자 법제, 동물 관련 법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그것과도 우리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가축 살처분 법제 분석 및 입법적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가축은 우리 축산법이라든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가축분뇨법 쪽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소위 농장동물, 우리가 주로 식품생산용 동물이라고 하죠. 먹기 위해서 소, 돼지, 가금류 이러한 것들이 보통 가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축의 살처분은 보통 살의 과정과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라든가 그다음에 처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처분의 개념을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으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제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20조에 살처분을 본문과 단서에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소위 일반적 살처분.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조사라든가 질병의 감염 등을 확인한 후에 살처분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은 질병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살처분 해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살처분인데, 이 양자가 하나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의 패키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법제 분석을 하면서 나름 법 이론적으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은 위험의 발생 개연성이라든가 위험의 종류라든가 법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하나로 패키지로 규율하는 것

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리해서 규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 발생개연성이 0에서부터 100까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하게 질병에 걸렸다. 이때는 법이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조 제1항 본문에서 보면 '~하여야 한다.' 소위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에 보면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3㎞ 이내 농가에 있는 가축은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재량행위를 규정을 할 때는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분명한 구분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살처분과 관련돼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분명히 구분하자. 그리고 법에서도 엄격하게 구별해서 입법하자, 이러한 주장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축 살처분의 근거 법률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살처분과 관련된 규정들은 20조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28조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아까 김 의원님이 소에 결핵이 걸렸다. 결핵은 2종 살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입니다. 여기는 일반적 살처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살처분이 없는 거죠. 만약에 행정청이 그러한 경우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3조, 21조, 22조, 48조 보시다시피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실태와 문제점들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때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제에도 생명체로서의 동물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좀 뜬금없다. 또는 이게 쉽게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체계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존엄성? 생명?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하나의 입법례를 보면 스위스 연방헌법 또는 그다음에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 보면 생명체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위법률에 보면 동물의 존엄성,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입법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입법이 만약에 우리 입법 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동물정책수립자나 또는 동물법령을 만드는 입법자에게는 하나의 어떠한 기본 원칙, 지침, 해석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법적인 판단을 할 때 동물의 이익을 고려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살처분을 할 때는 전살, 타격, 약물 사용 등으로 즉시 살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행동지침 같은 데 보면 정해진 방법으로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즉각적인 의식 소실을 유도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보호법에도 보면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고, 매몰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행위 이것을 보통 그 사회의 가치 지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신중하고 정제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때는 해당 법령이나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어떤 법적 분쟁을 판단을 할 때 그 법령, 그 조문의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죠.

우리 현재 법에 이러한 규정을 둔 목적이 뭘까요? 보통 이 살처분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혐오, 또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소위 항상 이야기하는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사회 풍속 이런 것에 반해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실정법에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은 동물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입법 취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행정청이 질병 관리 목적으로 어떤 살처분 명령을 내릴 때, 아까 김 의원님 경우에 관련 행정청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또는 법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형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쪽 영역에서는 특수한 형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살처분 명령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제 동물의 이익도 형량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축 살처분과 관련된 법제의 개선과 관련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예 살처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든 여기에 방역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제1원칙, 예방의 원칙을 명시화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방역 행정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는 아예 독립적인 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1창에 총칙, 2장에 사전방역체계 해갖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법조문에 보면 예방적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대체 우려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입법 연역적으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1961년에 제정이 되는데, 그때부터도 일반적 살처분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즉시적인 위험, 명확한 위

험에 대해서는 법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방적 살처분은 2001년에 도입이 됩니다. 아마도 그때 조류독감 문제, 구제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그냥 20조에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넣어놓고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나름대로 입법안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초안입니다. 20조에 살처분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 살처분에 관한 내용이고, 2항, 3항, 4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3㎞ 이내에 있는 농가지만 높은 산지로 격리되어 있다거나 큰 강이 있다거나 이렇게 전파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리가 참사랑농장에서 본 것처럼, 또는 아까 김 의원님 농장처럼 뭔가 동물 복지, 친환경농장 해갖고 정말 처음부터 농장주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농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사용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그것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거나 아까 김 의원님 상황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법 이론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은, 그러니까 행정 행위는 공정력이라고 해서 한 번 딱 떨어지면 법원에 의해서,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지자체장이 한 번 해놓고는 취소도 못 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해당 지자체장이 일정한 요건에 맞추면 그것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상 일단 이렇게 규명하게 구분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동물 축산 관련 법령들을 크게, 넓게 봐서 소위 정합성을 한번 맞춰보는 시도.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에 대한 궁합을 한번 맞춰본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표에 보면 위에 '농어촌보호육성책무'라고 해서 현행 헌법입니다. 제9장에 경제의 장이 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우리 헌법이 동물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경제의 장에서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살처분의 법적 성질을 이야기할 때 23조 재산권 조항으로 가서 그것이 사회적 제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동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어촌보호육성책무가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이나 방역에 축산법, 낙농진흥법 등등의 이러한 법률들이 그동안 쭉 있었고, 어쨌든 헌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형태로 법체계들이 있어졌던 것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왔는데, 어느 날 동물보호법이 딱 생깁니다. 전체 체계에서 보면 완전히 외딴 섬, 따로 노는 그러한 법이 되어 왔고, 현실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거기 38조 3항에 국가의 동물보호책무규정이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갖는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동물보호책무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축산업 육성, 개발, 육종 이것 중심의 법체계가 보호와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든든한 헌법적인 빽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칭 아까 이정미 의원님이 '동물기본법'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처음 듣기는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기본법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본법은 이것처럼 항공모함이 딱 있으면 뒤에 많은 하위법률이 딱 따라가듯이 각각의 영역을 조율을 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법을 만들게 되면 축사, 방역, 축산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동물 보호, 동물 복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물과 관련돼서 지금 이것은 전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가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 현실을 반영해서 동물과 관련돼서 법을 갖고 있는 기 환경부의 야생생물법, 그다음에 동물원수족관법, 식약처의 시험동물법, 그다음에 이런 가축과 관련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있는데, 실제로 더 큰 구도를 보게 되면 동물정책기본법에서는 저러한 어떤 법률의 정책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입법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계적으로는 가축 살처분에 관한 문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자라고 한다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20조에 관한 살처분, 그러니까 일반적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절차, 집행, 보상 규정부터 한번 선을 보는 그러한 개정, 이러한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누더기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집어넣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해서 3조, 3조의 2, 3조의 3, 3조의 4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축 살처분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도 약간 엇박자가 나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가축전염병예방법도 전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대통령 개정안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의 헌법개정안에도 동물 보호, 국가의 책무 이것을 꼭 좀 이쪽 정당이든 이쪽 정당이든 넣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 헌법 체계 하에 기본법을 만들고, 그 하위 법령들을 조율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함태성 교수님 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겠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계속 지적된 생명체 존중의 가치,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이제는 명시적으로 선언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발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후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하고, 전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5:46 ~ 16:00 **휴식** 】

3. 지정토론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앞서 1부에서 굉장히 소중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 4시에 시작한 2부에서는 세 분의 토론자 분께서 10분씩 1부 발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남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발표자, 토론자의 상호 토론과 또 오늘 와 주신 여러분 모두의 전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무 수의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는데요. 박종무 수의사님은 현재 동물법비교연구회에 함께 하고 계시고, 가톨릭생명대학원에서 살처분 문제로 박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 원장)**

안녕하세요? 박종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발제자 분께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생명과 관련하여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 그 논의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식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는 동물을 기계로 인식했고,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 논의들이 최근에 들어 피터 싱어는 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그리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터 싱어조차도 동물은 어떤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척추 동물이나 나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동물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 오늘 살처분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그렇고 동물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논의들이 고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고통이라는 기준조차도 굉장히 인간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동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생명을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대하는데, 요새 논의가 되는 고통을 기준으로 한 그 논의조차도 인간 중심적인 어떠한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폴 테일러 같은 경우는 개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 태도라고 했는데, 그때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봤을 때 평가하는 고통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름의 가치를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생명을 어느 범주까지 설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고통만을 평가한다면 사실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이 얼마큼 고통을 받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기껏 느끼는 게 동물은 뭔가 우리가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식물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전염병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미생물도 틀림없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한 문제까지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관련하여, 결국 고통은 인식의 한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인데,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 당연히 반응을 하고, 또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당연히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그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 범주를 정한다 그러면 인간에서 논의되는, 가령 보통 우리가 뇌사 상태나 식물인간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가?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래서 고통조차도 결국 하나의 인위적인 기준이다. 우리는 생명을 다룰 때는 생명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대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명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지구 생명 진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생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생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서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생명체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공생하는 관계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생태계에 대해서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미생물은 생태계의 순환에서 매우 핵심적인 생명이고, 모든 생물은 그 생물학적 환경에서 공존해 왔기 때문에, AI바이러스는 철새에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공생체였는데,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공생의 관계를 깨뜨린 것. 그것은 지금 환경적인 부분에서 공장식 밀집 사육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문제를 더 환원시키는 그 시각, 지금은 거의 방역 정책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보다는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을 찾는, 다시 말해서 축산 환경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물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동물과 관련된 논의인데, 좀 더 진행돼서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서 미생물들,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헌법에 넣을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미생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권리의 문제 그런 것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법은 법의 문제이고, 그리고 법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봄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생명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미생물까지도 포함한 인식을 확장하는 그 과정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왜 가축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가축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바이러스, 전염병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유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제역이 처음에 살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된 영국 같은 경우는 농민들은 구제역은 우리가 감기 앓는 것처럼, 사람들이 감기 앓고 금방 이겨내는 것처럼 다 한 번씩 앓는 그런 아주 심각하지 않은 병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져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2010년에 돼지를 수출하면서 얻는 이익은 한 2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살처분하고 보상하고 이런저런 비용이 거의 2조가 넘게 들어갔거든요. 거의 1,000배 가까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처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도 그 이외의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가축 살처분은 전염병의 심각성이나 경제적 이윤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공장식 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축산 자체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토지도 많지 않고 또 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99.5%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상태에서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윤이 굉장히 박하고 그러니까 결국 규모로써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공장식 축산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 자본은 회전이 되어져야지만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회전이 보통 지금 대체로 연 5.1회 그 정도의 순환이

돼야지 이익을 보는데, 가축들이 아프게 되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닭을 35일간 사육을 했는데, 요새는 점점 그게 속도가 빨라져서 32일 정도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아프게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그 자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0만 마리의 어떤, 그러니까 35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되거나 가금류가 1,000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바라보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통상적으로 전염병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평아리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6억 마리 정도가 태어나자마자 갈려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6억 마리가 통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1,000만 마리 이것은 세발의 피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축산 환경에서 빨리 어차피 돈으로 받기 때문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살처분 자체가 축산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축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박종무 선생님은 생명의 근본 가치와 또 살처분 제도를 넘어 축산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굉장히 소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좀 많이 경험하시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천시 환경보호과의 권순원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권순원 (경기도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보호과장과 자원관리과장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참 처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동물의 생명 존중, 또 동물 복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010년도 자원관리과장을 하면서 사실 이천시에 축산이 많은데, 소, 돼지 38만 두를 매몰한 장본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모든 매몰지를 다 공사감독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환경오염 때문에 모든 매몰지를 저희가 공사감독하면서 매몰을 했었거든요. 전국에서는 특이하게 사실 이게 축산 매몰지 관리는 중앙부처는 농림축산부, 지자체는 축산과나 축산부서의 일인데, 유일하게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몰과 또 매몰지 사후 관리를 약 7년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수를 매몰했고, 또 오랫동안 매몰지를 관리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만큼 현장을 자세하게 잘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축을 살처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로드킬(roadkill) 당한 모습. 한 마리의 야생동물이 바퀴에 밟히고 이런 모습만 봐도 상당히 몸서리 쳐지고 그러는데, 아까 문선희 작가님 사진을 보니까 지금 내가 현장에 다시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적나라함에 비하면 상당히 낭만적인 사진이죠. 현장에 비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와 돼지, 닭을 매몰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묻는 거다. 바이러스라고 생각해라. 더 많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이거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는 일이냐? 즉,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러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독려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때 당시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매몰을 하면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게 매몰지에 조성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것대로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냐, 조금 간략하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쪽은 뭐냐 하면 사후에 발생할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천시가 2010년 돼지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그렇게 안 했지만 매몰지를 조성할 때 바닥에 비닐 깔고 이런 게 아니라 매립장에 차수막 시트를 깔듯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뭐였냐면 약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10일, 15일. 날씨는 춥죠,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농림축산부 쪽에서 난리가 났죠. "빨리 매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살처분을 하고 매몰을 하는 이유가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대로 하려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훨씬 더 많은 가축을 죽이게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결국에 우리도 비닐을 깔고 매몰을 했고, 그 후에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언론 보도가 됐고, 아까 문 작가님이 사진 찍은 것처럼 침출수가 나오는 모습, 지하수가 오염되는 모습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됐었죠.

하여간 우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몰을 한 것은, 가축을 죽인 것은 사실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 또 오늘 이러한 우리가 동물 복지라든가 동물의 생명 존중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늘 토론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대규모 매몰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없이 지나갔다면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값싼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계란을

먹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고 그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했던 사실 그것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물 생명 존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중에 아까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매몰이 됐을 때 정부 예산 손실비용이 약 2조에서 3조까지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동물 복지, 또 생명 존중, 또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썼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진짜 청정 축산 환경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 정책이 필요한데,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축사의 현대화, 또 밀식 사육 제한을 하고, 또 밀집된 사육 환경을 격리 시키고, 또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철새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이나 호수 주변, 철새 주변 도래지에서 벗어난 지역 산골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작업 등 결국에 모든 정책들을 잘 동원하면 이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렇게 매몰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님, 또 교수님, 전문가, 공익단체, 시민사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태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그걸로 끝났지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살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결국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AI 때문에 살처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2016년도에 AI로 인한 대규모 가금류 살처분 이후에 작년에도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대응이 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처분 마리 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

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많이 살처분을 하느냐, 적게 살처분을 하느냐라는 문제였었지 계속 살처분은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매몰지 수는 여태까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늘어난 매몰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환경부나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발생된 매몰지는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관리 수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법을 만들어가지고 관정을 파도 신고를 하고 폐쇄를 해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도 토양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걸 다 걷어서 처리를 해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을 안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몇 년 동안을 대규모로, 또는 조금씩 매몰을 해서 매몰지를 만들어놓고, 가축 사체를 지하에다 묻어놓고 문제없다, 안전하다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 관리 기준에 상당히 따라가지 못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몰지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로 지적을 했고요. 또 작가님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큰 환경오염 문제, 지하수 오염은 드러나지 않지만 한 번 오염되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매몰지는 빨리 소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매몰지를 소멸하는 기술을 민간업체나 환경부 용역으로 할 때도 저희 이천에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 농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리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올해 47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한 가지 바람

이 있다면 매몰지를 소멸할 때 얼마나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사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토양 오염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게 남은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권순원 과장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입법의 기본 취지와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살처분이란 정책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심층적 접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선희 작가의 발표에 이어서 일부에서도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매몰지 문제이거나 단순히 동물을 묻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좀 더 신중한 생각들을 나눠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제연구원의 이유봉입니다. 앞서서 권순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짚어주셔서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가 가장 약한 자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다루는 살처분이나 동물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들, 상황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나 하나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가축에

대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축이라는 게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물 복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식생활과 또 그것을 공급하는 하나의 산업적 차원에서의 축산업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가 이것을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 풀어가려면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논의들로 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 '생명'이라는 것에서코 따진다면 존재적인 부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물의 여타 문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가축의 문제, 특히 살처분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봤는데요. 하나는 이런 살처분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원인, 아예 살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원인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이미 살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럼 살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생이 된 상황에서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원인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용적인, 산업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비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가격이라는 매체를 가지고서 일종의 시장가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시장이 이러한 비용을 담지 못 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가 환경 규제 이런 쪽인데, 환경문제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걸 '외부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즉 현실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 발생한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시장이 포섭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공장식 사육은 축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것이 위험의 산물로서 전염병을 더 쉽게 발생하게 한다든지, 그것에 대응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산업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 시장구조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규제 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제도적인 용어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먹는물관리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수 사먹을 때 하나의 산업, 시장 내에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지만 또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먹는 물 산업, 즉 제조업체들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소스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오히려 큰 대기업으로 흡수되면서 그 농가의 경영이 위탁식으로 운영되어지고, 결국 그 보상금은 실질적인 농장주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80%가 흘러간다고 의원실에서 발표된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순환적인 고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살처분 보상금을 대기업에서 가져가고, 또 대기업은 축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오히려 밀식된 공장식 사육을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적인 구조가 발생되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타 다른 환경이나 공익상의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부담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살처분 문제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했으면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앞서서 함태성 교수님께서 사실 예방적 접근 방법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하나 좀 생각해본 것이, 3㎞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축산 허가를 할 때 사전에 밀집도에 대한 지역 관

리를 통해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농가의 밀집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담뱃가게라든지 목욕탕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이격 거리 규제를 하거든요. 목욕탕도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여타 산업의 균형성을 위해서 이격 거리 규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3㎞ 내에서의 다 그런 위험성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축산 허가를 할 때 이격 거리 규제를 하면 오히려 사전적 위험이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살처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또 심지어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떤 동물에 대한 고통의 문제라든지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우리가 사실 도축이나 살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험동물 같은 경우에도 실험동물윤리위원회라고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인간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동물들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물가축축산농가에서도 하나의 윤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살처분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나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얘기한 부담금을 통해서 이런 재정들이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예방, 방역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일동 박수 】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이유봉 박사님, 실제 입법안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원래 5시 20분까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시 50분까지는 오늘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더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 4시 5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오늘 참여해 주신 분의 질문과 토론을 듣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께서 오래 자리를 지키시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표창원 의원님, 관심 기울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5시 10분부터 20분까지 10분 정도 오늘 전체 세미나에 대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그러면 발표하신 분들 자유롭게 50분까지 15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 **문선희 (사진작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가시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법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보고 너무 놀랐고, 그래서 '이게 뭐지?'하고 그때 처음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이런 자리가 생기면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제역을 가축 1종전염병 명단에서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해 주신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다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엄청 많이 파묻혔다는 걸 알고 갔는데도, 막상 현장에서 3,000 몇 마리, 몇 만 마리 이렇게 쓰인 경고 표지판을 보는데,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 땅에 그렇게 많은? 조금 묻힌 곳이 소 200마리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소 200마리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파묻었나? 이렇게 많이 키웠나? 이렇게 많이 파묻다니, 도대체 구제역은 얼마나 무서운 병일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구제역은 놀랍게도 치사율이 아주 낮은 병인 거예요. 1~5%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러면 죽지도 않는 병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파묻은 거야? 그래서 제

가 이걸 왜 파묻었는지 찾아봤더니 관련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구제역이 가축 1종전염병 명단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구제역이 왜 목록에 들었지?'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1933년에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죠. 그 이후로 구제역이 한 번도 발견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997년에 이 법을 도입할 당시에 수의사 선생님들도 실제로 구제역을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책에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법을 수입했느냐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구제역을 1종전염병으로 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화 돼야 하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럼 왜 구제역을 1종전염병 명단에 넣었는지를 찾아봤더니 인류 최초로 1800년 중반에 영국이 구제역을 살처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2주 만 있으면 그냥 낫는 병이에요.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파묻으라고? 그런데 그때 영국에 엄청나게 심각한 우역이 돌았어요. 우역은 치사율이 너무 높은 병이에요. 전국적으로 우역이 퍼지니까 농민들이 다 너무 놀랐겠죠. 그 때 정부에서 그걸 막은 거예요. 다 불태우고 파묻어서.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아,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믿은 거죠.

그때 영국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2주 동안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구제역이 입이나 발굽에 물집이 생기거든요. 입에 물집이 생기면 잘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발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2주나 사료를 먹여도 동물들이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구제역을 지구 최초로 살처분 명단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영국 애들은 미쳤나봐. 왜 저래?"라고 했겠죠. 독일에서는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백신 정책을 썼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각자의 길을 갔는데, 영국이랑 유럽이 경제공동체가 되면서 영국에서 "야, 우리는 구제역 걸리면

무조건 살처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백신을 쓰면 교류가 힘들다." 그런데 그 때 유럽은 백신정책을 써서 구제역이 잠잠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 우리도 백신 비용도 아깝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살처분 정책으로 할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프랑스 파리에 있거든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오케이 하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구제역이 갑자기 살처분 명부에 오른 거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었던 병이니까 일단 넣은 거죠.

제가 알기로 1997년에 법을 바꾸자마자 우리나라에 최초에 구제역이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전염병이 강원도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밤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군부대에 협조를 부탁하고 농민들에게 정부가 전부다 살 테니까 걱정 말고 무조건 통제에 따르도록 해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됐는데도, 엄청나게 잘 마크를 했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구제역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지금은 구제역이 갈수록 더 마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방역이 안 되나 봤더니 유럽은 주변국들이 구제역 발생국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주변국들이 상시 발생국이에요. 그런데 구제역은 바이러스여서 옷에도 묻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예요.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하러 왔고, 그 사람들 자기들 먹을 거 택배로 다 받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 진짜로 바이러스가 공기에 묻어도 온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파묻겠어요?

찾아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많았어요. 우리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뭐가 이익인가? 우리가 수출할 때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럼 우리가 수출해서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20~22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돼지고지 많이 먹으니까 키운 거는 우리가 거의 다 먹고요. 소고기 수입해 와도 우리가 다 한우를 좋아해서 별로 타격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출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

가 그래서 관련 전문가한테 “그럼 왜 법이 안 뀝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런 전염병조차 통제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OECD 회원국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자살률도 1위고, 노인 빈곤률, 연간 노동시간 같이 1위하는 종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자존심 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경제적으로 계산해 주셨 듯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농가에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되면서 반경 3㎞는 이내는 전부 파묻어야 되요. 그러면 반경 3㎞ 내 농장주인들에게 저는 죽일 놈이 됩니다. 저 때문에 다 강제로 파묻어야 하니까요. 농가에서도 반대하고, 경제적 손실도 심하고, 수출에도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고, 그런데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무엇보다 동물들은 큰 고통을 받고, 게다가 또 이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은요?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은요?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매몰지 찾아다니면서 ‘그래. 더 많은 동물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파묻었을 거야. 정말 그럴 거야. 제발 그래야 돼.’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치사율이 1~5%인 병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때로는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구제역을 1종 가축전염병 명단에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 의원님.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또 발표하실 분.

○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여기 청정화를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책 방역 실패를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물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먹을 것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이 좀 다르고요. 실제 이미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은 토착화돼가지고 초봄에 유행한 게 방역했다고, 성공했다고 발표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해 겨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보면 초봄에 유행했던 게 사실 다시 유행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감기 유행하듯이. 그러나 정부 방역당국은 또 그것을 "새로 주변국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초봄의 유행과 같다고 말하면 초봄 때 방역에 실패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에서 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가져오지 않나?' 이런 불안까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법제상 행정조직에서 필요한 것은 방역한 곳과 그 방역 정책이 성공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EU처럼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경기의 플레이어를 평가하는 심판이 우리 국내에서는 한 군데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검역본부에서 방역도 하고 그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평가를 본인들이 다 하다 보니까 실제 모든 관련된 자료도 그쪽에 다 있고, 저희들이 그 유전자를 딱 보니까 이건 봄에 유행한 거가 다시 겨울이 돼서 유행한 건데, 그게 "외국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마무리해버려요. 그럼 유전자형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면 그런 것은 또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늘 말하지만 방역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기구는 분리시켜야 된다. 이것은 EU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복이 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수출을 위해서 청정화를 했다 이런 것은 사실 그게 아니라 왜 그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빨리 멈추고 백신 체제를 전환을 안 했느냐? 그리고 많은 동물을 죽였냐? 했더니 그때 나온 구실이 청정화를 하면 수출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그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서

계속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역이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행이 너무 빨리 번지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이유로 걸린 거가 자연 치유는 되지만 사료의 효율이라든지 증체율이나 모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돈만 들어가다 보니까 살처분이 진행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 번 냉정하게 전문가 수의사들이 검토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토론문에 대해서 제가 박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생명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지 왜 내재적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을 할지. 왜냐하면 생명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선언해 버리면 사실 다양한 논의가 죽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시키는 게 뭘까라는 점에서 고통이 등장하는 거고,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제했을 적에도 미생물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것처럼 원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의 느낌을 고통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은 인지의 형태지만 또한 동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어떤 기준이 무생물과 생명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을 때 내재적 가치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뭐냐는 질문이, 즉, 내재적 가치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선언에 그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양한 논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3번에 가축 살처분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살처분을 할 때는 수의학적 위험성이나 경제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결국 경제적 대규모 양계장,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된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살처분 하는 이유가 여기 밑에서 경제적인 걸 또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축의 생명에 대한 배려는 없고, 가축은 철저

히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래서 앞에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고 했는데, 뒤에는 또 경제적인 이유를 들으셔서 어떤 흐름인가.

○ **박종무 (평화와생명동물병원 원장)**

일단은 두 가지 중에서 뒷부분이 먼저 간단한 거니까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축 살처분을 하게 되면 그 진행 자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손실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수출과 관련돼서.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서는 살처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출하면서 얻는 이익이 그 당시에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매몰하고 그런 걸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컸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 자체만 놓고서는 그게 경제적 이익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이익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보다 근원적으로 왜 이 살처분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가축의 구제역을 이렇게 살처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를 먹이는데 애들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 자체가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병 자체로 인한 금전적,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그 축산업 자체를 지금 현 시스템에서 빨리빨리 순환을 해서 회전 시켜야 되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그러니까 축산업 자체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 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을 해버리면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재적 가치라고 일단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 아니면 생명을 떠나서 다른 모든 것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존중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된다고 봐

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어떤 이유로 존중할 것인가? 왜라는 이런 고민은 결국 모든 생명체는 살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살아가고자 하는 데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생명공동체 내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 특히 바이러스 세균들이 생명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인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 자체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결국 가축전염병 이 부분도 결국 관계의 문제잖아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철새들은 기본적으로 AI 다 가지고 있고, 이외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문제없어요. 그냥 공존하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 공존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생명을 볼 때, 즉 각각의 내재적 존재로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관계를 온전히 하고자 할 때 다양한 공동체들이 공존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이러스는 병균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공존화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으로서 존중하겠다는 인식하는 어떤 태도, 생명에 대한 시각이 다양한 것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재적 가치라는 것을 떠나서 무엇을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다른 발표자분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청중**

저는 경기도 수의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의사회장을 맡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문선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게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동물위생시험소라고 주로 기술적인 파트, 시군 돌아다니면서 "저거 죽여." 하는 장본인입니다. 전국에 살처분 한 거는 거의 90%가 제가 죽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느낀 점도 있고 그래서 동물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앞장서서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97년 강원도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2000년도에 안산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역당국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했는데, 초반에는 이 타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전파력이 틀리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온 거는 정말 1~5%가 아니라 20%까지도 죽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에 축산계에 계시는 분은 알지만 절대 수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제대로 못 먹고 건강하지 않고 그런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기나 훨씬 센 독감이 들어오면 정부 당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치를 해야죠.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는 또 소비자들한테 믿음을 줘야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돼지, 대한민국 소가 백신을 맞고 다른 나라에서 다 건강한 돼지, 축산물을 소비하는데, 대한민국은 백신을 놓고 그리고 빌빌 죽어가는 돼지가 도축장으로 간다. 그런 의심도 날 수가 있고,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

구제역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처분한 것입니다. 제일 악성질병으로 분류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작가님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제역은 2000년부터 많이 발생된 게 아니고 그 때는 드문드문 발생했고 우리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안동에서 발생돼서 파주까지 올라가서 전국을 휩쓸어가지고 도저히 못 막아서 제가 청와대까지 가서 비서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백신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시기가 안 됩니다." 해서 백신을 쓴 장본인입니다. 이게

뉴질랜드나 호주, 미국 가면 구제역 발생되면 한국 사람은 따로 설 정도였습니다. 구제역 옮을까봐. “한국사람 이리로 모이세요.” 해서 1시간 동안 앉아서 교육 시키고 통관 절차하고 그런 수모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그동안 계속 국민들과의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살처분 정책으로 갔고, 그리고 최근에는 백신을 쓰고 그러는데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되도록이면 살처분을 안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수의사들 3㎞당 한 사람씩 둬가지고 밤을 새워 결국에는 지켜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발표를 하셨지만 살처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 건강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살처분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3㎞ 이내에 다 살처분 할 게 아니고 수의사들을 배치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검사를 하면 양성이 이틀 만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2시간, 3시간 만에 나옵니다. 또 요새는 키트만 대면 양성이 나오고 이 정도니까 지금도 이렇게 3㎞ 이내를 다 살처분 할 게 아니라 전문 수의사들을 농가별로 파견해서 발생농가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축방역협회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실, 귀농을 해서 2010년도에 충북 충주시에서 소, 돼지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09시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그때 묻었던 사체를 어떻게 꺼내서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냐를 오늘 오전 9시까지 회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죽여서 묻는 일, 묻었던 것을 다시 꺼내는 현장에 지금까

지 있습니다. 물론 제 손으로 죽여도 봤고, 묻어도 봤고, 꺼내도 봤습니다.

안타까운 것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짜 천만다행인 것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됐다는 것, 이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을 설치했으니까요. 제가 학술적인 거나 계량화된 계수를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혹시 살처분 사체를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에는 폐기물이 아닌 걸로 되어 있죠. 폐기물관리법 3조 6항에 보면 폐기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현장에 100% 국가 예산을 갖고 집행합니다. 죽이는 거든 묻는 거든 꺼내는 거든. 그런데 거기 실제 가보시면 투입되는 인력의 95%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즉, 현행법상 범법자가 있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추적도 안 됩니다. 아주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결을 좀 법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사체 소멸화 사업을 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몰지 복원화 작업을 한다고 그러십니다. 포커스를 사체 소멸화에 맞추느냐, 좀 더 광의의 뜻인 생태 복원으로 볼 것이냐 아직 이것조차도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 현장 주무관님들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표현하시는 게. 어떤 데 가면 지금 아까 문 작가님께서 1만 두 말씀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법대로 따지면 550두 이상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기준으로. 그런데 1만 두는 애교입니다. 제가 아는 거는 3만 두. 3만 두면 여기 이 전체 공간의 대여섯 배가 땅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어놓은 속에 아까 권순원 과장님 말씀처럼 비닐로 잘 쌌습니다. 비닐로 싸서 소독해서 그 땅 에 상시 온도가 8~13도입니다. 김치냉장고 신선칸에 저장해 두신 겁니다. 썩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간곡히 표창원 의원님께 말씀 올립니다. 환경부와 농림부의 세종시에 근무하시지

않는 현장에 최소한 돼지꼬리 3번 이상 잡아보신 분들로 이루어진 TF팀이 있어야지만 현장의 매뉴얼 북이 나온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폐기물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동물의 사체는 개념상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폐기물법 적용 제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에 동물 사체를 빼놨는데, 매몰된 동물 사체를 예를 들면 사료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소각해서 재활용한다거나 이쪽에서 그대로 폐기물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어쨌든 법 개념상으로는 폐기물 개념에 부합하는 폐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적용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원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생태계 복원하는 복원이라고 할 때 개념상 원래의 모습대로 100%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려울 때는 '복구'라고 하거나 또는 유사한 것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매몰지 복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마 없을 겁니다.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청중**

안녕하세요?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제가 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발생농장 30군데를 잠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영상으로 찍어서 외부에 알렸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법보다 생명이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저는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현장이 김포에 있었고, 밤에 들어갔는데, 포클레인으로 파가지고 4,000 마리를 묻는데, 저는 제가 동물보호단체에 있으면서 20년 동안에 여러 가지 학대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것처럼 참혹하고 끔찍하고 잔인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저는 다른 건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평사에서 기르는 오리라든가 육계들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비닐을 덮은 후에 질소 가스를 주입해서 안락사 매뉴얼대로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산란계 닭들은 10단, 15단까지 쌓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빼가지고 제가 세종시에 가서 잠입해서 보니까 외국인 용역도 쓰고 국내 용역도 쓰고 하는데, 뽑아가지고 빼가지고 마대자루에다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씩 넣어가지고 마치 무용담 하듯이 벽에다 막 내리칩니다. 누가 더 잔인하고 누가 더 용감하게 하는가 웃으면서 막. 바로 세종시 앞에 농가에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법에서는 가스법, 전살법 해서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국회라든가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동물 복지입니다. 지금같이 공장식 축사 감금식 사육에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들어가려고 닭장 문을 열면 대낮인데도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초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오물이라든가 분뇨라든가 털 날리는 거, 먼지. 낮인데도 캄캄해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병이 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상하고요. 거기서 저

병원성AI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고병원성이 된다는 것은 외국의 논문 자료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 복지가 향상되지 않고서는... 조그마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인간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면역력이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2010년, 2011년도에 350만 마리 이천에서 여기 오셨다고 하는데, 묻었는데, 그것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동물단체가 올려가지고 그게 유트브에 올라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예방 백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O형 바이러스는 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4월에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12,000마리의 돼지를 생매장했어요. 그런데 왜 했는가 가만히 봤더니 A형 바이러스였어요. 즉, 국내에서는 구제역 백신은 O형만 쓰고 A형만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의해서 카바를 일단 하겠다는 매뉴얼에다 집어넣고 보도 자료까지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아까 방역을 잘해서 올해 AI 발생이 적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올해는 적은 거냐? 충청도라든가 전라도에서 오리사육휴업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3분의 2 농가가 문을 안 열고 그냥 보상 받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오리예요. 오리에서 그다음에 육계로 넘어가고, 육계에서 산란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야생 조류에서는. 거기서 차단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방역 때문에 잘된 거 전혀 아닙니다.

방역은, 살처분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살처분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여기에 지금 목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류독감도 우리가 진짜 상시 백신, 사전 백신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거 절대로 방역으로 백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때 백신해가지고 대량 살처분 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중**

저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문정진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생명을 묻다.'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을 진단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그리고 표창원 의원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처음 봤어요, 의원님 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우리 축산단체협의회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 먼저 드립니다.

사실 우리 농가도 가축을 매몰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저희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AI가 발생이 되고 또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 아까 말씀한 대로 AI, 구제역이 바이러스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경기도 수의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희 농가도 매몰할 때 아까 이원복 회장님 그 냄새나고 먼지 나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희 농가들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 2008년도, 2017년도 쭉 왔을 때 언론에서, 또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AI로 인해서 닭고기, 오리고기 먹으면 금방 죽

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AI, 구제역 발생해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부하고 우리 관련된 산업이 정말로. 왜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AI, 구제역을 사회의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대통령께서 총리를 불러서 모든 내각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AI를 마무리해라." 그래서 농림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은 이게 올해 지금 가장 빨리 AI 발생이 22건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이 이유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AI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8일이 걸리니까 문제가 됐어요. SOP 규정에 24시간 안에 매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강 장관님이 이런 귀한 시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축산단체에서도 동물단체와 같이 사실 이런 문제를 좀 진지하게 대화해서 우리 산업도 살리고, 또 가축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각자 보는 입장에서 자기주장만 얘기하게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향후에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충분히 대화해서 가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산업도 살리고 이런 사회의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마무리만 말씀할게요. 오늘도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모든지 용어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류독감'이라는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송3사, 언론인들이 다 해서 'AI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조류독감' 하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AI조류인플루엔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제가 시간관계상 토론을 끊는 입장이 돼서 많이 죄송하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세미나가 국회의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로펌의 공익법인들도 본격적으로 입법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발언을 해 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주최 측에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의견이 있으실 때는 또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많으시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다 모으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총평 및 폐회

○ **좌장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

마지막으로 표창원 의원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총평과 마무리 발언 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표창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찾아봬야 되거든요. 찾아뵙고 현장 말씀 듣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학술적인 연구 성과들... 그래야 이 법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각각의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경험들, 연구 성과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비록 제가 혼자서 지키기는 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공유를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향후 입법에 반영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산단체협의회장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그와 아울러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 우리 사회 산업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충족이 되어야만 입법이 가능해지거든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해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소위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한 분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않으셔야 상위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만 다시 또 본회의 전체회의에 올라가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동물보호 입법이 잘 진척이 안 됐습니다. 갈등 요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 갈등 요소를 최대한 입법 전 단계에서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

으신 분들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동물 복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동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래야 질병도 줄어들고, 결국은 국가 예산도 절감될 테고, 축산 농가들도 비용이라든지 또 가족처럼 키우는 생명들의 안타까운 손실을 보시면서 감정적인 상처도 덜 받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실적 난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바로 공장식 축산업을 금지시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함께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중재자로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씩 변화해 나가는 진보의 주체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꼭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시급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일부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거나 또는 조금의 손실을 보전해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다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 아주 중대한 생명의 침해라든지 또는 보건, 건강, 복지, 생명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이것은 바로 개선해야 될 응급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양해와 협조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다시 장관님 시간되실 때 2차, 3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도 보고 드리고, 추가 입법에 대한 혜안, 조언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 사회 함보현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희가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속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완성이 되면 참석하신 분들께 파일 형태든 인쇄물 형태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2차, 3차 법 개정 관련해서, 또는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폐회 : 17시 16분]

본 회의 속기록은, 2018년 7월 9일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

내용과 상위 없이 기록·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107호(서초동, 칠보빌딩)
대 표 속 기 사 김 수 경
사업자등록번호 264-81-30602
☎ 592-1800 / (FAX) 592-1802

속기법인 대한